



# 펜싱 코리아 ... 금2 은1 동3 '칼의 노래'

## 신아람의 눈물 '劍氣'를 깨우다

## 한국 펜싱 새로운 전성시대 활짝 역대 최고성적 넘어 新 효자종목



남현희(31·성남시청)는 장비를 챙기며 남달라 눈물을 흘렸다. 신아람(26·계룡시청)은 피스트에 1시간 넘게 앉아 하염없이 울먹였다.

이렇게 2012 런던올림픽의 한국 펜싱은 그치지 않는 눈물로 시작했다. 그러나 눈물이 마른 자리에는 환희와 영광이 만발했다.

◇기대주들의 부진 = 펜싱은 대회 초반 메달 레이스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받았으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최고 스타로 기대를 모았던 남현희(31·성남시청)는 중반까지 경기를 잘 풀어나가도 후반 들어 상대의 공격에 어이없이 무너져 준결승과 3~4위전에서 연달아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다.

상위 랭커들이 대거 포진한 남자 사브르 대표팀 선수들도 나란히 16강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너졌다.

대회 사흘째에는 신아람이 역대 최악의 오심 스캔들에 당했다. 여자 에페 개인전 준결승 연장전에서 신아람은 종료 1초를 남겨놓고 무려 세 번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안 경기 종료가 선언되지 않아 네 번째 공격을 허용하고 패배했다.

마지막 공격만 놓고 봐도 분명히 1초가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경기장 시계는 그대로 멈춰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역대 올림픽 5대 오심'으로 꼽힐 정도로

황당한 사건이었으나 국제펜싱연맹(FIE)은 끝내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시간 넘게 피스트에 앉아 울먹이던 신아람은 진이 빠져 3~4위전에서 패배하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신아람 사건' 이후 메달 레이스 = 그러나 어른들이 연방 '햇발질'을 하는 동안 선수들은 새로운 각오로 굳게 뭉쳐 대반격에 나섰다.

선수촌에 모여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력으로 보여주자'고 결의를 다진 선수들은 신아람 사건이 터진 이튿날부터 놀라운 메달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말똥' 최병철(31·화성시청)은 공격적인 펜싱을 앞세워 남자 플뢰레 개인전 동메달

을 목에 걸고 분위기를 일신했다.

다음날에는 남자 에페 정진선(28·화성시청)이 개인전 동메달을 따내더니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 나선 김지연(24·익산시청)이 '깜짝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한국 여자 선수 사상 첫 금메달이자 사브르 종목 사상 첫 메달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2000년 시드니 대회 성적(금 1개, 동 1개)을 훌쩍 넘어선 선수단은 거칠 것이 없었다.

여자 플뢰레 대표팀이 단체전 3위를 차지 하더니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단체전 정상을 석권하며 두 번째 금메달 소식을 알렸다.

마지막 날 '1초 오심'의 희생자인 신아람을 필두로 한 여자 에페 대표팀이 단체전

은메달까지 따내면서 다섯 동안 이어진 숨 가쁜 메달 레이스가 끝났다.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따낸 한국은 4일까지 이탈리아(금 2개, 은 2개, 동 2개)에 이어 종합 순위 2위에 올라 있다. 총 메달 개수로는 이탈리아와 공동 1위다.

특히 한국은 출전한 9개 종목 중에서 남자 사브르 개인전을 제외한 8개 종목에 4강 진출자를 배출해 세계 펜싱계의 '새로운 강자'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또 이날까지 한국이 따낸 17개의 메달 중 6개를 책임지면서 '새로운 효자 종목'으로 떠올랐다.

◇투자로 빛은 '한국형 펜싱' 2016년 올림

픽 전망도 '반짝' = 이런 선전의 배경에는 부쩍 늘어난 투자가 있다는 것이 선수와 지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2003년 대한펜싱협회장으로 조정남 회장이 취임하면서 SK 텔레콤의 지원을 받으며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2009년 손길승 회장이 취임하면서 연간 지원 규모가 12억 원으로 뛰어올랐다.

지원이 늘면서 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경험을 쌓은 선수들은 서서히 중주국인 유럽 강호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

여기에 지도자들의 열정이 더해지면서 유럽과는 다른 '한국형 펜싱'이 뿌리를 내렸다.

선수들이 런던올림픽을 거치면서 자리를 잡은 덕에 한국 펜싱의 '전성시대'는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지연과 구본길(23·국민체육진흥공단), 신아람 등 스타덤에 오른 선수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나이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절정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어 전망을 밝힌다.

연합뉴스



"은메달 땀어요" 신아람이 4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엑셀 런던 사우스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돌고 있다. 한국팀은 신아람, 정효정, 최인정, 최은숙으로 꾸러졌다. /연합뉴스



"금이다 금이야" 한국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 선수들이 4일 영국 런던 사우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에서 단체전 결승전에서 루마니아를 물리치고 승리,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女 검객들, 변방의 설움 딛고 세계 찢었다

### 아시아 2~3위에서 에페 단체전 은메달 쾌거

2012 런던올림픽에서 펜싱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여자 에페 대표팀은 세계대회는커녕 아시아권에서도 주로 2~3위에 머물러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이었다.

단체전 세계랭킹 10위도 안된 경기에서 나선 8개국 중 가장 랭킹이 낮다.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2009년 단체전 1위를 차지한 게 최근 유일한 우승이다.

개인적으로는 더욱 주목받는 선수도 없었다. 이번 대회 개인전 준결승에서 역올한 오심으로 인해 '핫이슈'로 떠오른 신아람(26·계룡시청)도 사실 펜싱계에서도 크게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다.

2009년까지 세계랭킹도 100위권 밖을 맴돌았다. 하지만 꾸준히 쌓은 국제 경력을 토대로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동메달을 따내는 등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이번 대회에서 만개한 기량을 펼쳤다.

에페 대표팀에서 가장 경력이 긴 '말똥' 정효정(28·부산시청)도 크게 주목받는 성적을 낸 적이 별로 없다.

초등학생이던 1997년 선수 생활을 시작한 정효정은 2006년 처음 태극마크를 달고 도하 아시아게임에서 단체전 2위를 차지한 이래 꾸준히 대표팀에서 활약했다.

신아람과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최인정

(22·계룡시청)은 대표팀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다. 초등학생 때인 2004년 펜싱을 시작했고 2010년에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아시아게임 무대조차 밟아본 적이 없어 국제종합대회가 처음이지만, 막내다운 패기로 거침없는 검을 찢었다.

최인정은 2008~2010년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개인과 단체를 통틀어 네 차례나 정상에 오르는 등 미래가 밝은 유망주로 꼽힌다.

후보 선수로 대회에 나온 최은숙(26·광주서구청)도 경력이 길다.

2003년 후보선수로 태극마크를 달았고 2005년부터 여러 차례 대표팀을 들락날락하며 경험을 쌓았다.

연합뉴스

## 베고 찌르고 ... 우리도 몰랐던 '사브르 체질'

### 유럽 강호들 연파하고 금메달 2 깜짝 수확

한국 펜싱이 2012 런던올림픽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브르 전성시대'를 맞았다.

한국 펜싱은 3일(이하 현지시간)까지 이번 대회에서 따낸 2개의 금메달을 모두 사브르에서 수확했다.

애초 '사상 첫 메달' 정도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대표팀의 성적은 양상서서 이끌었다.

베기와 찌르기를 모두 사용해 머리와 양팔을 포함한 상체 전 부분을 공격하는 사브르는 한국이 유독 약세를 보여 온 종목이다.

찌르기만 하는 다른 종목과 달리 다양한 방향에서 공격이 가능해 변수가 많다.

변수가 많은 만큼 심판의 재량권도 커서

중주국인 유럽의 텃세가 가장 심한 종목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한국은 플뢰레의 인기가 높았던 일본을 통해 펜싱을 받아들인 탓에 사브르의 기반이 더욱 취약했다.

실제로 지난 올림픽까지 한국은 남자 플뢰레와 여자 에페, 여자 플뢰레에서 각각 하나씩의 메달을 따냈을 뿐 사브르에서는 한번도 시상대에 서지 못했다.

대회 둘째 날인 29일 남자 개인전에서 아무도 16강 문턱을 넘지 못했을 때만 해도 '여전히 안되는가'하는 안타까움이 크게 남았다.

특히 구본길은 판정에서 약간의 손해를 본 터라 더욱 그랬다.

그러나 1일 김지연(24·익산시청)이 여자 선수는 물론이고 사브르 선수 중 최초로 '깜짝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동료들의 상승세에 올라탄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3일 유럽의 강호들을 연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여자 사브르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04년 이후 관심과 투자가 늘면서 좋은 선수들을 길러낸 것이 이번 대회에서 사브르를 '효자 종목'으로 만들었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 선수들은 빠른 발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격을 퍼부으면서 유럽의 텃세를 넘어섰다.

연합뉴스



## 박태환 실격파동 이겨내고 銀 2

### 1500m 4위 ... 대회 마무리

잘 싸웠다. 한국 수영의 자랑인 박태환(23·SK텔레콤)이 4일(현지시간)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14분50초61의 기록으로 4위를 차지하고 이번 대회를 끝냈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 세 종목에 출전해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은메달 두 개

를 수확했다.

한국 남자선수가 올림픽에서 2회 연속 2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한 것은 박태환이 처음이다.

특히 세계 수영계의 변방인 한국에서 두 대회 연속 올림픽 메달을 가져간 것은 우리나라 체육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 첫 출전 종목인 자유형 400m에서 '실격 파동'이라는 불의의 시

련을 겪었다.

자유형 400m는 박태환이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한 주 종목으로 금메달은 물론 내심 세계신기록까지 노리고 있었다.

오전 예선 경기에서도 조 1위, 전체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냈다.

하지만 출발 신호 전에 몸을 움직였다는 불명확한 이유로 실격 처리됐다.

이후 우리 선수단의 두 차례에 걸친 의

제가 끝에 결국 잘못된 실격 판정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박태환은 예선 경기가 끝난 뒤 약 4시간 사이에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박태환은 결승에서 3분42초06을 기록, 당당히 은메달을 땀다.

박태환은 자유형 200m에서 1분44초93의 기록으로 쏜양과 동시에 터치패드를 찍어 1분43초14를 기록한 야니 아넬(프랑스)에 이어 쏜양과 공동 은메달을 차지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자유형 1,500m에 출전했다. 위대한 도전이었다. 비록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실격파동을 딛고 세계수영사에 한 획을 그을 도전에 나선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었다.

연합뉴스